

전설이 깃든 연화꽃

옛날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마을에 있는 연못들은 제주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람들은 연못을 드나들며 여러 가지 상상을 펼쳤다. 그 덕분에 연못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상가로 |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941-1 ~ 애월읍 상가리 1123(약 1.3km)

하가로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117-7 ~ 애월읍 하가리 1605-8(약 2.2km)

애상로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564 ~ 애월읍 상가리 1811-6(약 2.8km)

상가북2길 |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94-3 ~ 애월읍 상가리 1748(약 0.2km)

고내로 |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018-3 ~ 애월읍 고내리 1243-8(약 0.9km)

고내봉길 |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825-1 ~ 애월읍 애월리 38-1(약 0.8km)

오당빌레길 |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813-6 ~ 애월읍 하가리 743-1(약 2.3km)

상가로/하가로 | 더럭마을

상гар로는 상가리를 동서로 가로질러 중산간도로와 이어지고, 하가로는 하가리 마을의 변화가를 지나는 일주도로와 연결된다. 상가리와 하가리는 원래 한 마을이었다. 마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고려시대 하가리의 연화못에 살던 도적을 잡았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일찍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던 것 같다. 고려시대에는 현촌이 설치되었던 고내현에 속해 있다가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분리되어 더럭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더럭마을을 한자로 가락(加樂)이라 표기했는데, 발음이 유사해서 더할 가(加)와 즐거울 락(樂)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마을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웃마을은 웃더럭, 아랫마을을 알더럭으로 다시 나뉘게 되어 오늘날 상가리와 하가리가 되었다고 한다.



연화못

하가로 | 연화못

하가로에는 연꽃이 많이 피어서 연화못이라고 부르는 연못이 있다. 원래 연화못 자리는 울창한 산림지대였다고 한다. 이곳이 연못이 된데는 마을을 위협하던 도적과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고려 충렬왕 시절에 힘센 도적이 이 자리에 집을 짓고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적질을 일삼아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 그 위세가 관에서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여서 갖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

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목사가 부임해 왔는데, 목사가 순시 중에 이 마을을 들른다는 것을 알게 된 도적들은 목사 일행을 습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 마을에 살던 똑할망이 도적들의 계략을 눈치채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관아에 그 사실을 알렸다. 목사는 병력을 모아 도적을 소탕하고는 도적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 자리를 깊게 파서 연못을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그 때 만들어진 연못이 연화못이라고 한다. 도적을 소탕하는데 큰 공을 세운 똑할망은 도적들의 칼에 목숨을 잃었는데 공적을 높이 사서 여자임에도 향교에서 제사를 지내줬다고 한다.

애상로 | 방사탑

상가리와 하가리의 경계가 되는 애상로는 애월리에서 상가리를 연결하는 길이다. 애상로에서 하가로로 빠지는 길에는 작은 방사탑이 세워져 있다. 방사탑은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경우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세우기도 하고, 풍수지리 상기가 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때 모자란 기운을 채우기 위해 쌓는다. 사람들은 방사탑이 전염병이나 화재와 같은 위협에서 마을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다. 애상로의 방사탑 역시 마을의 액운을 막기 위해 세웠다. 방사탑은 여러 가지 재난을 막기 위한 나름의 방책이었다. 재해를 미리 막기 힘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작은 돌탑으로나마 마을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상가북2길 | 상가리 팽나무

제주의 마을에서는 오래된 팽나무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상가북2길에 있는 상가리의 팽나무는 그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오래된 나무이다. 팽나무의 수령은 9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가리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왔다고 한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대여섯 그루의 팽나무가 줄지어 자라고 있어 폭낭거리(팽나무 거리)라고 불렀지만, 강력했던 태풍 사라 때문에 대부분의 나무가 사라지고 한 그루만 남았다고 한다. 팽나무는 숨바꼭질을 하던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했고, 무더위를 식히러 그늘을 찾아온 어른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쉼터가 되기도 했다. 소나무는 천년을 가지만 팽나무는 만년을 간다는 말처럼 오늘도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다.

고내로 / 고내봉길 | 고내리와 고내봉

고내로는 고내리를 지나는 길이다. 고내리(高內)라는 이름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려있지 않지만 높은 지대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보고 있다. 남쪽은 고내봉으로, 동쪽과 서쪽은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마치 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내리는 제주에서 한라산을 볼 수 없는 몇 안 되는 마을이다.



고내봉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고려 때부터 현촌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고내리에서 발견되는 고려시대의 청자와 기와 등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한다. 고내리 바닷가에 남아있는 환해장성과 고내봉에 있었다는 봉수대 등의 흔적들을 보았을 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고내봉길은 일주서로에서 갈라져 고내봉으로 이어진다. 고내봉은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오름이다. 정상에는 옛날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던 고내봉수가 있었다고 한다. 인근의 수산봉수, 도내봉수와 불과 햇불로 신호를 보내며 긴급한 소식을 주고받았다. 문인들은 고내 마을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며 고내8경이라 했는데 그 중 세 가지가 고내봉과 관련되어 있다. 고래의 등과 같이 넓은 고내봉의 목초지에서 마소를 방목하던 목동들의 피리소리를 경배목적(鯨背牧笛), 스님들이 수도를 했다는 고내봉 중턱의 큰 굴에서 풍류와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을 고릉유사(古陵遊寺), 울창하게 자란 고내봉의 소나무 숲의 모습을 용악이송(春岳兒松)이라 하며 고내봉의 경치를 즐겼다.

오당빌레길 | 오당빌레

애상로와 고하상로를 연결하는 **오당빌레길**은 그 지역 옛 지명인 오당빌레를 의미하는 길이다. 하가리에는 송씨할망을 모시는 오당빌레 할망당이 있다. 이 당은 정월에 하루를 택해 일 년에 한 번 다녀간다고 한다. 이 당에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변도령이라는 사람이 마을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변도령의 어머니가 당에 가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해 놓았는데 배가 고프는 변도령이 음식을 몰래 먹어버렸다.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엉덩이에 허물이나 나버리라고 외쳤다. 그랬더니 변도령의 엉덩이에 종기가 난 것이었다. 변도령은 할망당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됐다고 여기고는 당을 찾아가 종기를 터뜨려 당에 묻혀버렸다. 그런데 그 때부터 마을에 피부병이 돌았다. 사람들은 할망당에 빌어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고 정성을 다해 할망신의 노여움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